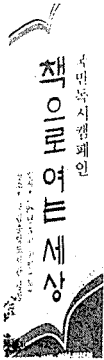


국민독서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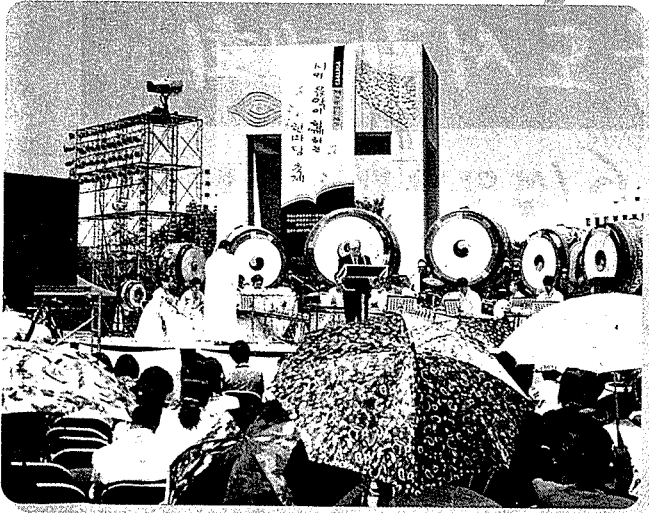


“책으로 여는 세상”



우리협회는 지난 5월 30일(토)·31일(일) 양일간 국립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열린 국민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을 국립중앙도서관·국립영상제작소·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주관하였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보생명과 교보문고가 협찬한 이번 행사는 경제위기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속에서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극복의 지혜를 책속에서 찾고, 지식과 정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된 것이다.



◆ 행사 주요 내용 ◆

〈제1부〉 “책의 축제”

- 주제를 도서특가판매코너 개설 / 알뜰 도서교환판매 및 문화상품 코너 /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 베스트셀러 작가 사인회 및 일일판매 / 독자 사은 기념품 제공 / 즉석 독서 캠페인 포어
- 독서관련 세미나 (남태우 교수 등 2명)
- 1일 도서관 문화학교 (강사 정덕희 교수)

〈제2부〉 “책으로 여는 세상” KBS TV 특별기획공연

- 오프닝: “책으로 여는 세상” Music Video(한국을 빛낸 100권의 책들)
- 창극: “풍년가”, “금수강산” “나를 감동시킨 한권의 책” 소개 / 동요·동시 매들리
- 휘날래: “열정”

- 특별출연: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합창단, KBS 예술단, KBS 관현악단 사물놀이 한울림, 신승훈, 이승철, R.ef, 변진섭, 이현우, 송대관, 소프라노 박미혜 MC(손범수, 황현정)
- 전시회 「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도서」특별전

- 전시기간: '98. 5. 30 ~ '98. 6. 5
-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대전시실
- 전시내용: 저명인사 애장도서, 고전 100선(한국의 고전, 세계의 고전)



▲ 「알뜰도서 교환전」 도우미로 수고한 송의여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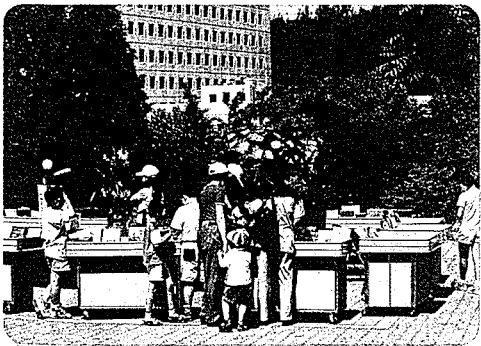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의 안내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시찰하고 특별전 시장 및 알뜰장터 등을 둘러 보면서 참가 시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행사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박문석 문화정책 국장 등 관계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미리 살펴보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행사 당일에는 「알뜰도서장터」 마당에서 중고등학생과 출판 및 도서관계 대표 40여명과 자리를 함께하여 독서진흥 및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즉석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알뜰도서 교환시장」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고르는 흐뭇한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 협회는 「책으로 여는 세상」의 다양한 행사 가운데서 특히 「알뜰도서교환시장」과 독서세미나 「독서와 정보의 세계」를 직접 기획·운영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등에서 기증한 1,500여책으로 마련된 「알뜰도서교환시장」에는 이미 읽은 책들을 바꿔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세미나에서는 “독서진흥 및 정보유통 전문가의 활동영역과 그 책임”(남태우 중앙대 교수) “사서직에 대한 역할기대의 확대와 취업환경”(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정보검색 서비스분야에서의 사서직의 수요와 전망”(권혜진 중앙일보 정보검색실 정보검색사)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